

##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문화예술 복지서비스 Culture and Art welfare services for low-income children

맹홍균<sup>1</sup>, 오경석<sup>2</sup>

Maeng HongGyun<sup>1</sup>, Oh Gyeongseok<sup>2\*</sup>

### 요약

사회, 경제 구조가 지식 중심의 사회에서 문화예술 중심의 사회로 변하면서 21세기를 문화예술의 시대라 지칭하고 있다.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환경을 이루고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여가 생활의 활성화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예술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문화예술복지서비스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의 개념과 특징과 문화예술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사례, 활성화 방안들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사례들로 나타난 단점을 극복하고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문화예술, 복지서비스, 저소득층 복지, 정부지원

### Abstract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has since changed from a knowledge-based society to a culture-oriented society, and the 21st century is also referred to as the era of culture and arts. It also means that everybody should have a healthy and pleasant living environment, enjoy cultural arts, and ensure that they enjoy human life through the activation of leisure activities. Therefore, culture and art business for the low-income class, which can be called the society alienation class, should also be propo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urrent status of cultural and arts welfare services for low-income children and how to activate them in the future.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low income class, the necessity and the case of cultural arts welfare service, and the activation methods were studied in this paper. In order to overcome the disadvantage of the cases and to activate them, it is suggested that policy support,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and professional workforce.

**Keyword:** Cultural arts, Welfare services, Low-income welfare, government support

1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okmin Univ.,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  
e-mail: honggyung.maeng@kookmin.ac.kr

2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okmin Univ.,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  
e-mail: gyeongseok.oh@kookmin.ac.kr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October 15.2014), Review (December 10.2014), Accepted(December 31.2014)

## 1. 서론

사회, 경제 구조가 지식 중심의 사회에서 문화예술 중심의 사회로 변하면서 21세기를 문화예술의 시대라 지칭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화역량이 국력을 상징하는 척도라 여기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구하고 이를 강조하여 도시·지역 계획은 물론 정책까지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생활에서 문화예술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결국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환경을 이루고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여가 생활의 활성화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그 중에서도 점점 중요시되고 있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물질적 계급사회에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의 폐해가 아닐 수 없다[1].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예술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평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보고 즐길 수 없었던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적 혜택을 주기 위해 기획된 사업인 '문화 바우처 사업'이나, '문화 나눔 사업' 등이 진행되는 것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주로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지원하는 형태가 단순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이나 복지 사업 정도로 이루어지다보니 정작 지원 대상자인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주재자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예술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원 현황과 형태를 살펴보고 지원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더 나은 지원 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II.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복지서비스

### 1. 저소득층의 개념 및 특징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최저생계비가 소득의 이하이거나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일 때 이를 저소득층이라 지칭한다.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생활보호의 수준에 있거나, 그 정도의 소득으로 생

활하고 있는 계층이다. 단지 소득이 적다는 것에 의해 저소득층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 불안정성, 소득의 불규칙성, 사회적 활동력의 약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지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층은 소득기준에 따라 절대빈곤층,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 계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저소득층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층이 아닌, 일정한 상황이나 노력의 유무에 따라 절대빈곤층으로도 혹은 빈곤이 아니라 평균적 경제수준집단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차상위계층, 즉 상대적 빈곤층을 의미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문화예술향유 기회는 가질 수 없는 계층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절대빈곤층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을 의미하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구분된다. 차상위 계층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법적·행정적 용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라고 한다[2]. 차상위 가구는 1~2인 구성 비율이 높으며, 노인가구 및 편모가구의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소득이나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이외에 차차상위 계층은 차상위 이상 소득분위 하위40%이하의 계층을 의미한다. 2011년 12월 말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아래와 같다.

[표 1] 수급자수와 구성비율  
[Table 1] Number of recipients and composition ratio

(2011년)

| 구분   | 계         | 일반수급자     | 시설수급자  | 가구수       |
|------|-----------|-----------|--------|-----------|
| 수급자수 | 1,469,254 | 1,379,865 | 89,389 | 850,689가구 |
| 구성비  | 100       | 93.9      | 6.1    |           |

(단위: 명, %)

저소득층의 문제는 단지 어려운 생활이라든지 육체적 곤란과 같은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빈곤을 통하여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과 경제적인 것을 넘어 사회적 조건과 자원의 활동능력은 있지만 실직상태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일을 하고 있는 낮은 임금과 취업의 불안정성으로 자립을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

다. 저소득층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교육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적 요소들이 그들을 빈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빈곤가구는 저학력, 여성가장, 취업한 가구원이 적은 가구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노인과 장애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가 많다. 이러한 가족 구성의 특징들이 저소득층의 소득은 적고 지출은 많게 하여 빈곤상태에 머물게 하는 한 요소이다. 이 외에도 열악한 주거환경, 다양한 질병, 불안정한 직업, 자녀들 교육문제, 공동활동에 대한 무관심, 가정해체와 처자식 유기현상 등이 사회적 특징으로 나타난다. 저소득층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개인과 사회 간의 결속이 없거나 약하여 주민들 사이의 공동체적 연대감과 자치능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과거 저소득층의 주거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저소득층이 일반소득층과 함께 어울려 살았다고 한다면, 현재에는 저소득층의 주거가 밀집되어 지역화 경향을 띄는 특성 역시 나타난다[1].

## 2.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문화예술의 필요성

문화복지는 오늘날 복지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경향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복지를 주로 물질적인 삶의 보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수십 년간을 경제제일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을 시행해온 결과,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저소득층의 문화적 권리는 이들이 스스로의 소외를 극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이면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이들에게 요구되는 권리임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그동안의 접근은 이들의 최저생계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물론 저소득층에 있어서 물질적 결핍과 박탈로서의 빈곤 상황은 생존에 필요한 여건마저 갖춰지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며, 이는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가 이들의 인간으로서의 존립과 존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빈곤은 인간의 기본권리를 침해한다. 다른 한편으로 빈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국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개인의 문제의 차원을 뛰어 넘어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제기된다[3].

2012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관람 및 지출 현황을 볼 때 계층별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도시규모가 클수록, 고소득층 일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

예술을 자주 접하고 있었으며, 그나마 참여하는 대중들에게 대부분의 문화예술 활동은 '영화관람'에 그치고 있었다.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클래식 음악회, 오페라, 연극, 무용 등의 문화예술 관람은 아직 소수의 대중들만이 즐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문화예술 활동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한 이유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시간적, 금전적 여유와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 접근성 등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4].

최근 문화적 권리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노동과 보건, 사회복지 등 다양한 차원에서 그 권리 회복이 주장되었을 뿐, 문화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이를 문화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관점을 가짐과 동시에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구체적인 작업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층에 있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재해석 될 수 있다. 첫째,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문화예술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을 접함으로써 하나의 지역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며 둘째, 저소득층이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점점 사회와의 연대감을 갖는다는 것이며 셋째,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지적, 예술적 감성을 접하면서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예술향유 기회 지원에 해당하는 문화시설의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한 저소득층의 비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Ⅲ. 사례연구

박물관·미술관의 저소득층 자녀 교육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사회적 포용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교육프로그램의 운영방향, 운영 방식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을 서울시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꿈나무 예술탐험대'와 덕수궁미술관의 '희망을 그리는 미술관' 사례와 문화예술 전반적인 복지 서비스인 문화바우처를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 사례 연구를 하고자 한다. 사례선정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국가기관이나 정부에 의해서 실시된 것,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일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례를 연구하기로 한다.

## 1. 문화바우처 제도

바우처란 정부가 직,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을 부여하여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바우처(voucher)의 사전적 의미는 증서 또는 상품권 등의 뜻이다. 원래는 마케팅에서 특정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 바우처는 구입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이 해당된다[5].

또한 문화바우처 제도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향수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저소득층의 문화 활동에서 비용의 문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현물 지원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점에서 문화 활동에 참여 계기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향수에 대한 계층 간 차별성을 완 화하고 나아가 문화관광 분야의 산업연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문화바우처 지원은 '신나는 예술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초생활수급 자와 차상위계층이라는 뚜렷한 지원대상과 수혜대상에게 100% 현물을 지급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6].

문화바우처는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음반,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다. 즉 연극, 뮤지컬, 음악, 전시, 무용, 영화, 문화일반, 전통 등의 장르구성을 통하여 문화바우처 이용자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리고 대중음악, 종교행사, 쇼, 오락 프로그램, 기타 박람회 등 지나치게 상업적이거나 예술분야와 관련이 적은 프로그램과 공연장, 전시장 등 개최 장소의 여건상 참여하기에 부적합한 프로그램 등은 제외하고 있으며, 지역문예회관에서 개최되는 공연 중 복권기금으로 추진하는 지방문예회관 특별 공연프로그램지원에 해당하는 공연도 이 중지원으로 간주하여 제외하고 있다. 순수예술로 분류하기 힘든 영화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사업비를 기준으로 20%이하, 미미한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있는 전시는 10%이상의 의무적 기준을 세워 이용자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통계수치상으로도 볼 수 있듯이 문화바우처 회원들에게 제공된 프로그램들 중에 선호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영화와 뮤지컬로 대중예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7].

문화바우처의 대표적인 사업성과로는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이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2009년도 복권기금 성과평가는 법정배분사업을 수행한 9개 기관의 30개 사업과 공익사업을 수행한 11개 기관의 19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복권기금 문화 나눔 사업은 전체 사업 중에서 90점이 넘는 최고 평가점수로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218억원의 예산으로 총 8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년 연속 복권기금사업 1위 달성은 2004년도부터 온 국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노력해 온 결실이 열매를 맺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문화바우처가 사회에 반영되는 의미가 크고 앞으로 국가의 문화예술 신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 2. 서울시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꿈나무 예술탐험대'

초등학생을 위한 서울시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인 '꿈나무 예술탐험대'는 2008년부터 시작하여 세종문화회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진행되며,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교육청 등을 통해 단체로 모집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어린이들을 우선 배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모집과정에서 서울시내에 모든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며, 복지단체가 2순위 개인 참여자 순으로 배정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적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을 우선으로 배정된다는 것과 서울시에서 모든 지원을 받아 진행함으로써 큰 의미를 가진다.

'꿈나무 예술탐험대'의 교육프로그램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중심사례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부터 예산까지 정부의 지원 하에 실시된다는 점이다. '꿈나무 예술탐험대'는 서울시 복지재단과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교육청 등의 지원으로 교육 대상자들에게 전액 무료로 참가가 가능하며 단체의 경우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을 하고 도시락까지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복지로서의 의미가 강한 프로그램이다.

둘째,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시 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대상자 선정에서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순위가 되고, 저소득층 자녀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한부모가정, 어린이등 사회취약계층

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셋째, 프로그램의 내용에 전시부터 공연, 체험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꿈나무 예술탐험대'는 1회 수업으로 전시감상활동과 평가·토론활동, 체험활동 및 공연관람으로 이루어진다. 교육 프로그램은 활동지를 활용하여 전시장에서 전시감상활동과 표현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며, 다같이 평가 및 토론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고, 공연장에서 쉽게 관람하기 어렵던 발레, 클래식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덕수궁 미술관 '희망을 그리는 미술관'

덕수궁미술관은 1998년 덕수궁 석조전에 국립현대미술관의 분관으로 개관 후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과 달리 근대미술 전문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2년 '덕수궁미술관'이라는 직제가 확정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인,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유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신청형태에 따라 개인, 학급단체, 복지관 및 공부방으로 구분된다. 덕수궁미술관의 '희망을 그리는 미술관'은 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단체신청을 받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만 7세~12세의 초등학생 30명 내외를 대상으로 수업시간은 1회 4시간이다. 덕수궁 미술관의 기획전과 연계하여 미술관 내부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며 전시연계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희망을 그리는 미술관'은 1회 수업으로 전시감상활동과 표현활동, 평가·토론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교육프로그램은 활동지를 활용하여 전시장에서 전시감상활동과 표현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며, 시청각실에서 표현활동에 대한 평가 및 토론을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덕수궁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중심사례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덕수궁미술관은 국립 미술관으로써 박물관·미술관 분야의 종사자들이 저소득층 자녀 교육프로그램과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교육프로그램보다 저소득층 자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사회적 포용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박물관·미술관의 저소득층 자녀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기에 덕수궁미술관의 '희망을 그리는 미술관'은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덕수궁미술관의 '희망을 그리는 미술관'은 미술관 내부에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현재 저소득층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한국 박물관·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 구성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의 대표적 사례는 '찾아가는 박물관'이다. 하지만 외부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 참가자들에게 체험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시와 체험을 함께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은 자녀가 보호자의 도움 없이 박물관·미술관에 자발적으로 방문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하지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은 전시연계를 기본구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문하여 박물관·미술관이라는 공간을 체험할 수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시를 체험할 수 있으므로 박물관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덕수궁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특징인 전시감상교육 중심의 구성과 각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동일하게 구성된 점은 저소득층 자녀의 특성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문제에 있어 여느 초등학생 교육프로그램과 동일한 구성인 점은 논의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향후 저소득층 자녀 교육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3].

## IV. 활성화 방안

### 1. 정책적 지원책 마련

문화복지 정책은 그 목표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접근방식을 가진다. 첫째는 문화의 민주화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으로 보다 많은 이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주된 정책대상은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제약으로 고급문화를 접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문화적 소외계층이다. 두 번째 접근방식은 문화 민주주의적 관점으로 일상 속에서 문화적 삶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그들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주된 정책대상은 소외계층으로 한정되기 보다는 국민 일반으로 확대된다. 두 가지 접근 방식 모두 궁극적으로는 '문화 접근성의 확대'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라는 문화권의 확보를 추구하고 있으며, 두 가지 모두 문화 복지 정책이 포괄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4].

그이유로 첫째,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는 일차적으로 예술제화를 소비하는 개인에게 심리적 만족감과 감동을 선사하는 한편 창조적 사고의 발전, 비판적 평가능력의 향상, 감정의 순화 등을 통해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도움을 주며, 감성적으로 성숙한 문화시민들을 배양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다.

둘째, 문화예술제화는 경험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정부는 어린 시절부터 자녀 및 청소년들에 대해 문화예술의 소비 및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수요자들의 문화적 기호, 선호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예술은 우리의 삶과 국가 전체에 상당한 편익과 가치를 제공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무지 혹은 무관심으로 인해 사회적 수요가 미미할 수 있는 가치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는 문화예술재화가 사회적으로 적정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예산상의 제약이라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정책 우선순위와 해당 목표를 추진해나가는 정책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문화적 양극화 현상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집중적인 재정적 투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부문은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향수기회의 확대, 즉 문화접근성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득과 상관없이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공연이나 전시 등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적 개입이 필요하며, 이 때 문화바우처 사업이나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강화와 생활권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문화복지정책 성과평가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 문화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다양한 방식의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효과성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효과성 평가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법 등으로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현재 많은 박물관·미술관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은 앞에 사례에서도 소개하였듯이 기획전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에듀케이터나 전문적인 교육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미비한 점이 많이 나타나는 실정이

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인력 및 교육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소개한 사례에 참가한 자녀들 중 박물관·미술관을 한번 가보거나 가보지 않은 자녀가 대부분을 이룬다. 그로 인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부담스럽고 경험 부족으로 인한 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자녀들이 통제에 잘 따를수 있는 방법 마련도 시급하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구성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음을 염두해 두고 조심스러운 진행이 필요하다고 본다[8-9].

국·공립 기관의 경우 재정적인 면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고, 교육인력이 타 기관에 비해 여유 있게 진행 될 수 있지만 타 기관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저해요소이다. 따라서 정부, 재단 등의 공적 자금을 지원 받아 저소득층 자녀 교육프로그램예산으로 사용하는 기관이 확대되어야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기업의 지원도 증가하여야 한다. 다양한 협력망을 구축하여 국립기관들과,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인력의 문제 또한 예산과 함께 박물관·미술관의 재정적 여건과 관련되어 큰 저해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인력의 양적, 질적 문제는 다양한 다른 영역의 기관들과 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NGO기관이나 기업들과의 협력망을 구축하여 사회봉사단을 활용한 인력확충, 학교와 연계하여 교사들의 지원을 받는 인력확충, 복지기관과의 협력망으로 인력확충의 방안으로 저소득층 자녀 교육프로그램의 양적·질적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준다.

## V. 결론

정보와 지식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문화의 세기'에 들어서면서, 사회적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문화의 힘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그동안 '문화향유'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되어온 저소득층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부족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여 문화감수성을 함양하고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형성, 발전시키며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해 왔으며,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하위문화는 마치 비행 또는 일탈

문화의 전형인 것처럼 인식되어온 경향이 크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문화예술복지서비스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의 개념과 특징과 문화예술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사례, 활성화 방안들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즉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최저생계비가 소득의 이하이거나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의 계층을 의미한다. 저소득층의 문화복지의 필요성은 오늘날 복지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경향으로써 물질적인 복지 뿐 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가 요구되고 있어서 저소득층에게도 문화복지가 필요하고 이러한 복지로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문화예술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을 접함으로써 하나의 지역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며 둘째, 저소득층이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점점 사회와의 연대감을 갖는다는 것이며 셋째,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지적, 예술적 감성을 접하면서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사례에서 문화 바우처와 ‘꿈나무 예술탐험대’, ‘희망을 그리는 미술관’을 제시하면서 저소득층 중심의 문화예술 복지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았고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문화예술복지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바우처 제도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을 부여하여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제도이다. 하지만 ‘문화바우처’의 경우 연간 사용한도액이 1가구당 5만원이다. 4인 가구를 가정하면 4인이 영화 한편씩을 보면 다 소진된다. 웬만한 공연이나 뮤지컬을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2010년까지 1인당 5만원이 1가구당 5만원으로 혜택의 축소로 인한 민원도 폭주하였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과거처럼 1인당 5만원으로 한도액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사업의 목표를 정책대상의 범위를 수정하여 좁은 정책대상에 대해 장기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꿈나무 예술탐험대’의 경우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 체험, 공연 등의 복합적인 문화예술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일시적인 기간에만 이루어진다는 점과 인원의 제한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모두 누릴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희망을 그리는 미술관’의 경우도 기획전시와 연결 된다는 점과 ‘꿈나무 예술탐험대’와 마찬가지로

지로 일시적인 기간과 제한된 인원이라는 점에서의 단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례들로 나타난 단점을 극복하고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문화복지 정책은 그 목표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접근방식을 가진다. 문화의 민주화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접근방식과 문화 민주주의적 관점의 접근방식이 있다. 과거 물질적인 지원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문화적, 정신적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획전시나 일시적인 프로그램도 좋지만, 국·공립 기관에서 상설전시기간중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관에서도 정부나 재단 등의 공적자금 연결, 기업과의 협력망을 구축하여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인력과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그리고 문화복지정책 성과평가방법 개발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사업들을 차등적인 지원으로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문화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떻게 국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는 중요한 국가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

문화의 발전은 한 나라의 국민의 감성, 한 시대의 정서를 형성하는데 크게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방적이면서 진취적인,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민의식, 보다 성찰적이고 책임적인 국민의식, 사회통합적인 가치와 연대를 중시하는 국민윤리 등을 만들어 가는 문화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소득과 지역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로써 국민의 삶의 질, 문화적이며 예술적 질 자체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 Reference

- [1] K.Y. Oh, A study on cultural welfare status of low-income bracket in Seoul city,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2011)
- [2]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 [3] D.E Lee, Museum education program for low-income children -A case study of the Deoksugung Museum-,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2009)
- [4] A survey of cultural enjoyment 2012.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Korean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2012)
- [5] H.J. Kim,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s of cultural welfare service for low-income bracket -Focused on the Culture Voucher System-,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08)
- [6] K.H. Jung and B.G. Choi, An Empirical Study of Cultural Divide and Policy Design for Culture Voucher,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007), Vol.10, No.4, pp.63-89.
- [7] J.Y. Chong, A Study of the Management Conditions of lottery fund cultural outreach programs -Focused on the Culture Voucher System-,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2011)
- [8] H.W. Yang, The government - local governments Improvement of the Cultural & Welfare Policy -Focused on the Culture Voucher System-, Korean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2011)
- [9] E.Y. Kim, The Impact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ograms for Qualitative Research - Jabareutte Arts Programme for Children of Low Income Families at the City of Ansan. Journal of Arts Management and Policy. (2011) Vol.19.